

멀리뛰기 유망주 박지현 금빛 도약 ‘찝’

제100회 전국체전 제주선수단 전력분석(상)기록종목
34종목에서 65개 이상 메달 획득 목표 수립
육상 9개·수영 8개 등 다관왕 가능성 높아

일제강점기인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100년간 이어진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 제주도는 34종목에서 65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선수 499명을 포함해 총 699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전국체전 대표자 회의의 대진 추첨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체육회가 해당 회원종목단체와 함께 분석한 전력을 토대로 종목별 메달 획득 가능성을 짚어본다.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고등부 25종목, 대학부 12종목, 일반부 30종목에 출전한다. 분석 결과 기록종목에서 37개의 메달과 토너먼트종목에서 28개를 포함해 모두 65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2개 종목에서 백종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메달 획득 가능성도 크다. 다만 출전 종목과 참가 선수단은 99회 대회 때와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전통적으로 효자

종목이었던 수영과 레슬링 우수선수들의 타 지역 유출이 가속화돼 메달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 기록종목에서는 육상에서 가장 많은 9개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여고부 박지현(신성여고 2)이 99회 대회에서 멀리뛰기 3위와 세단뛰기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6월 전국KBS배 전국육상경기에서는 멀리뛰기 1위와 세단뛰기 3위에 올라 이번 대회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다. 여대부 800m에서는 최수미(제주대 4)가 99회 대회 2위에 이어 지난 4월과 5월 각각 열린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해 유력한 금메달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최병광(삼성전자)과 이하늘(서귀포시청)은 각각 남일반부 20km 경보와 800m에서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여일반부는 올해 각종 대회에서 계속 입상권에 진입한 장대높이뛰기의 최윤희(제주시청)와

멀리뛰기의 정순욱(제주시청)이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포환던지기의 이수정(서귀포시청)과 원반던지기의 김민(서귀포시청)도 유력한 1위 후보다. 백종세인 남고부 400m 김이래향(남영고 3)과 여대부 800m 하서은(제주대 1), 남일반부 5000m·1만m 김태진(제주시청), 여일반부 세단뛰기 황미영(서귀포시청)도 눈여겨볼 선수다. 수영은 육상에 이어 기록종목에서 두 번째로 많은 8개의 메달이 예상된다. 여고부 싱크로다이빙 3m의 김예림·설윤재(이상 남영고 1)가 유력하며, 남일반부에서는 문재권(서귀포시청)이 평영 50m와 100m에서 2개의 메달을 노리고 있다. 여일반부에서는 플랫폼다이빙의 고현주(제주도청)와 플랫폼싱크로의 문나윤·고현주(제주도청), 자유형 200m의 박나리(제주시청), 접영 50m의 황서진(제주시청), 개인혼영 200m의 이희은(제주시청)이 유력한 메달 주자다. 남일반부 자유형 1500m의 박재훈(서귀포시청)과 함께 여일반부에서 개인혼영 400m의 이희은(제주시청), 자유형 400m의 박나리(제주시청), 싱크로다이빙 3m의 문나윤(제주도청)과 여고부 스프링보 오드 3m의 김예림(남영고 1)은 백종

세에서 다관왕도 노려볼 만하다. 양궁에서는 남일반부의 구본찬(현대제철)과 한재엽(현대제철)이 각각 30m와 50m 개인전과 함께 단체전에서도 메달을 목표로 맘을 홀리고 있다. 여일반부는 유수정(현대백화점)과 전현영(현대백화점)이 각각 70m와 30m 개인전 메달과 함께 단체전 메달도 겨냥하고 있다. 역도에서는 여일반부의 이세정(제주도청)이 용상 49kg 급에서 메달이 기대되며, 제주 역도의 살아 있는 전설 김수경(제주도청)이 용상 64kg에 출전해 개인 통산 대회 50번째 메달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사격에서는 여일반부의 광정혜(IBK기업은행)가 25m 권총에서 메달을 정조준할 예정이며, 한지영(IBK기업은행)과 제주선발팀이 각각 공기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한다. 자전거에서는 임수지(영주고 2)가 도로개인독주 15km에서 입상이 기대되며, 양가는(영주고 1)과 함께 개인독주 부문에서도 백종세로 평가받고 있다. 산악에서는 이용수(제주관광대 3)가 남일반부 스포츠클라이밍 속도 부문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제주도지부 회장기 전도사격대회가 28일 제주고 사격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제주도사격연맹 제공

표선중 오예진, 전도사격대회 신기록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회장기
여중부 공기권총 개인전 '1위'
서강철 교사, 지도교사상 수상

오예진(표선중)이 회장기 전도사격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했다. 오예진은 28일 제주고등학교 사격장에서 열린 제38회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장기 전도사격대회 여중부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558점의 기록으로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종전 신기록은 양지은(제주동여중)이 2018년에 세운 542점이다.

황경모(제주고)는 남고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613.1점으로 1위, 현혁준(제주고)은 남고부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557점으로 1위에 올랐다. 광정숙(제주사격연맹)은 여일반부

공기권총에서 557점으로 1위, 오수민(제주여상)은 여고부 공기권총에서 55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오승현(표선중)은 남중부 공기권총에서 532점으로 1위, 김재현(광령초)은 남초부 공기권총에서 325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남고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는 제주고(현혁준·최우진·윤해준·오예진)가 1632점, 여고부 단체전에서는 제주여상(오수민·정은주·김기빈·김나현)이 1647점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남중부 공기권총에는 노형중이 1378점, 여중부 공기권총에서는 제주동여중(김유현·정유진·강지예·조소희)이 1534점으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부 현혁준과 여자부 오예진이 각각 남·여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지도교사상은 표선중 서강철 교사에게 돌아갔다. 표성준기자

제주Utd, 강등권서 ‘살얼음’ 경쟁

대구 원정서 2-2 무승부
내달 6일 경남과 홈경기

강등권 위기에 처해 1승이 아쉬운 제주유나이티드가 대구 원정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제주는 28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3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골을 먼저 넣고도 2골을 내주면서 대구와 2-2로 비겼다. 이날 4-1-4-1 포메이션을 쓴 제주는 골키퍼 오승훈과 함께 김지은, 백동규, 김동우, 안현범, 강윤성, 윤일록, 윤빛가람, 이창민, 남준재, 오사구오나를 선발로 내세웠다. 제주는 전반 45분 윤일록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세징야로부터 반칙을 얻어 내며 VAR 판정으로 PK를 이끌어냈다. 키커로 나선 윤일록의 침착한 마무리로 제주는 1-0의 리드를 시작했다. 제주는 후반 16분 남준재 대신 입찬을 투입했지만 19분 김지우이 스로

인 상황에서 시간을 끌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고 말았다. 분위기를 탄 대구의 공세가 거세지자 28분 윤일록과 권순형을 맞바꾸고 대응에 나선 제주는 수석 열세에도 불구하고 후반 31분 안현범이 날린 중거리 슈팅이 박병현을 맞고 골점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져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제주는 후반 34분 정승원에 게 만회골을 내준 데 이어 경기 종료 직전에는 박기동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다 잡은 승리를 눈앞에서 놓쳤다. 이날 무승부로 K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제주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경남과의 홈경기를 끝으로 33라운드를 마무리한 뒤 하위 스플릿(6-12위) 라운드 5경기를 치러 2부리그(K리그2) 강등 여부를 가리게 된다. 현재 승점 23점인 제주(12위)는 승점 24점의 인천(11위), 승점 25점의 경남(10위)과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표성준기자



28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3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왼쪽)는 2골을 먼저 넣고도 2골을 내주면서 대구FC와 2-2로 비겼다.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류현진, 아시아 최초 ERA 1위

최종전서 7이닝 무실점 역투
평균자책점 2.32·시즌 14승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정규리그 마지막 등판에서 무실점 역투로 역대 아시아 투수 최초의 평균자책점(ERA) 1위라는 새 역사를 창조했다. 류현진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19 마구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고 실점 없이 던졌다. 안타는 5개를 맞았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 한 점도 안 줬다. 류현진은 공 97개를 던졌고 땅볼 아웃을 9개나 유도해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뽕뽕 묶었다.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을 2.41에서 2.32로 낮춰 에이컵 그림(뉴욕 메츠·2.43)을 따돌리고 내셔널리그 1위이자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확정했다. 또 '토네이도'로 빅리그를 휘저은 일본인 노모 히데오가 1995년 세운 역대 아시아 투수 최저 평균자책점(2.54) 기록도 24년 만에 새로 썼다. 아시아 선발 투수가 투수 부문 주요 타이틀을 차지한 건 탈삼진 부문의 노모(1995년 236개·2001년 220개)와 다르빗슈 유(2013년 277개), 다승 부문의 대만 투수 왕젠밍(2006년 19승)에 이어 류현진이 4번째다. 2-0으로 앞선 8회 초 타석에서 대타로 교체된 류현진은 경기가 그대로 끝남에 따라 시즌 14승(5패)째를 수확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다큐 공감(재) 11:50 한식야의 마음(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이 부탁해(재) 9:40 무한도전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콩다리(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좋은 날 10:45 웰컴2라이프(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정보 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당동맹 유치원 9:30 원더볼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45 물랑 14:55 꼬마버스 타요 15:10 로보카 폴리 16:10 최고대! 호기심딱지 17:20 그림을 그려요 19:00 스파이더맨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3:50 보물섬 14:40 우영왕 15:30 확산도 식물이야기(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동물의 왕국	13:10 트랜지트 노트 세상을 건다 스페셜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도전 샐러드(재) 17:00 썸바이벌 1+1(재)	12:00 12 MBC 뉴스 12:20 웰컴2라이프(재) 13:30 헬로키키즈 신바런 자연교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롱뽀롱 모두 다 콩다리(재) 16:20 모두 다 콩다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나는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릭! NOW 제주(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지현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 뉴스쇼 12:00 CBS뉴스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가즈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자녀종합뉴스 18:15 시사저널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만 22:05 백현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여름이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3:00 더 라이브 23: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클로빌24 20:55 옥탑방의 문제아들 22: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22:35 너의 노래를 들려줘 23:10 안영하세요 1부 23:55 안영하세요 2부	18:25 TV특강 스페셜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웰컴2라이프 21:30 웰컴2라이프 22:05 스토레이트 23:05 다큐세이 그 사람	18: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9:00 네모세모 18: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1부 21:30 생활의 달인 2부 22:00 리틀 포레스트 1부 22:40 리틀 포레스트 2부 23:20 동상이몽2 나는 내운명 1부 24:00 동상이몽2 나는 내운명 2부	KCTV 7:00 KCTV 뉴스 8:30 나 별명은 대통령 9:30 로드맨 히트 더 로드 10:00 KCTV 다큐스페셜 12:10 콜로벌 야구데이 14:00 KCTV 뉴스 15:00 KCTV 다큐스페셜 16:10 스포츠당구 더 레슨 17:00 KCTV 뉴스 18:00 로드맨 히트 더 로드 19:00 KCTV 뉴스 7 21:3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30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일이 호전되고 자녀와 관계된 일로 소식이 오거나 경사가 있다. 48년 직접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주변에 자문을 구하라. 60년 차량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거나 운전중심, 72년 계약으로 길하고 변동은 도 원만, 집안보다 외부활동이 더 중요하다. 84년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더욱 전문가로 발돋움할것.	 42년 감사와 고마운 사람에게 표현을 하라. 54년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즐겁게 비워라. 66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데도 하다 방해자가 생긴다. 78년 변동수가 생기고 구매 충동이 강해진다. 90년 전복양란의 임상이 오면 주변인의 지해를 얻어 일을 해결하는데 좋다.	
 37년 두통이나 신경성 질환이 온다. 재물과 관계된 일이 발생한다. 49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61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데도 하다 방해자가 생긴다. 73년 일이 앞에 산적해 있다면 미루지 말라. 다음에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 85년 직장이나 취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조기귀가.	 43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저축 또는 미래 설계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55년 급히 서두를 일이 생긴다. 문서변화, 소송건에서는 불리하다. 67년 자녀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79년 취업이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매출이 증가. 91년 의욕이 강하고 갈 곳이 많다. 활동 원만.	
 38년 대인관계를 활용하면 결과와 기쁨이 있다. 50년 상대 비판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니 비판하지 마라. 62년 마음과 몸이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이다. 74년 나의 파산한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도 상대를 매료시킨다. 86년 구설이 따르니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44년 배우자 건강이 불리하니 퇴근시 보약이나 영양제라도 가져가면 좋다. 56년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 부모님께 방문, 안부전화 필요. 68년 동업자가 동업체지 정중하 거절도 필요하며 자책감비하여 독립사업 길. 80년 머리손질이나 신발에 금점을 지출한다. 92년 매매나 문서상 이익이 오니 미루지 말 것.	
 39년 후회하지 않으려면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51년 일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행동에 옮겨라. 63년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되도록 하라. 75년 자녀 또는 가정에서 고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올리거나 방문도 좋다. 87년 마음먹은 일은 꼭 하려고 한다. 적극적인 추진력과 된다는 긍정의 힘이 필요.	 45년 일이 증가되고 몸이 분주하다 음주는 절제 필요. 57년 주유업, 숙박업, 차량업, 관광업은 늦게까지 분주하다. 69년 직장인에게 실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일이 발생하니 신경을 써라. 81년 정보활용과 친구나 선배를 만나 미래를 토론해보는 것도 좋다. 93년 감정대립 또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언행 자제.	
 40년 신변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조기에 귀가하되 과음은 자중하는 것이 좋다. 52년 갑질이 만데 조급함이 답답함으로 다가온다. 64년 동업 또는 장업에 여념이 없다.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76년 마음에 걱정이 먼저 앞선다. 생각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88년 정보는 미래의 나의 직업으로 연결된다.	 46년 분실 망실수가 있으니 지갑, 물건을 잘 챙길 것. 58년 돈지출이 생기고 금전문제로 의견차 발생. 70년 애매한 행동이 구설이 되니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82년 반가운 소식이거나 답답하던 일이 해소되니 인적자원을 활용하라. 94년 협조자나 동업자가 생기면 상의하여 공존공생하는 것이 유리하다.	
 41년 도움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53년 집안에 환경변화를 주거나 내일을 해 보려고 주변과 협의한다. 65년 부부간 논쟁이나 다툼이 있거나, 이성간 교제가 가까워 질수 있다. 77년 거래나 계약관계로 몸이 분주하고 소식이 찾아온다. 89년 부모님께 안부전화나 찾아 뵙는 것이 마음 편하다.	 47년 제조·건설분야, 관광사업 계약이 따른다. 59년 마음에 걱정이 먼저 앞선다. 생각보다 실천이 중요. 71년 동업 또는 장업에 생각이 여념이 없다.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83년 정보는 미래의 나의 직업으로 연결된다. 최선을 다하라. 95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감이 크지만 마음만은 넓게 가져야.	